# 심우장에 '만해역사공원' 조성 추진을

**주목! 이 논문**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의 현황과 추진방안'**

**올해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열반 80주기를 맞는 해이다. 독립운동가이자 불교 승려였으며, 한국문학사의 큰 족적을 남긴 문인이었던 만해 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선양행사가 전국 각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지은 성북구청 학예사는 대각사상연구원의 〈대각사상〉 제41집에 기고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의 현황과 추진방안'에서 성북구 소재 심우장을 중심으로 한 만해 스님 선양사업 방안을 제시했다. 그의 논문을 정리 · 발췌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리=신중일 기자

지방자치제가 1990년대 시작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역사 ·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023년)'이 최근 시행되어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성북구 역시 지역의 주요 역사·문화콘텐츠인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과 만해 한용운 심우장(이하 '심우장') 콘텐츠를 활용하여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으로서 축제, 문학축전, 기념식, 탐방, 문화유산 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여 성북의 지역정체성 확립과 주민의 자부심 고양, 지역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의 방향성 설정 필요, 타 자치단체와의 사업 중복문제, 성북 고유의 콘텐츠 부재 등으로 인하여 선양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만해 한용운과 심우장

만해 한용운은 1933년 벽산 스님이 집터를 기증하고 박광, 방응모 등 지인들의 도움으로 성북동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고 방 두 칸짜리 집을 지어 '심우장(尋牛莊)'으로 이름 지었다. '심우(尋牛)'는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 본성을 깨닫는 10단계의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일에 비유한 '심우도(尋牛圖)'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한용운은 성북동 깊은 산골짜기에 기거하며 '소', 즉 본성을 찾기 위한 '심우' 단계로 돌아가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였다.

당호 심우장의 '심우(尋牛)'는 본성을 찾기 위한 '심우도(尋牛圖)'의 열 가지 단계 중 첫 번째 단계로, 한용운은 거처 공간을 심우장으로 이름 붙인 이유를 '초심구도'의 뜻을 표하기 위함으로 밝힌 바 있다. 초심으로 돌아간 한용운이 심우장에서 추구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

한용운이 거주했던 심우장은 민족정신의 공간이었다. 일송 김동삼(一松 金東三, 1878~1937)이 경성형무소에서 사망하였을 때 심우장에서 장례를 치렀다.

특히 심우장은 대중과 함께하려 했던 한용운의 사상의 실천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소설들은 대중계몽과 교화를 위해 집필하였다. 또한 심우장은 당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한용운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성북동 깊은 골짜기까지 찾아온 항일사상가, 불교인, 문학가, 학생 등 많은 방문객의 고민을 들어주었던 대중과의 소통 공간이었다.

심우장을 중심으로 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위해서는 심우장을 독립을 위한 민족정신을 지킨 공간이자 자유, 평화, 평등 등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사상을 이야기하는 공간, 그 사상을 대중과 함께하고자 본인의 신념을 지키며 실천했던 공간으로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용운의 사상을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공간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성북구 만해 선양사업 현황

심우장은 만해 한용운 입적 후 따님 한영숙이 관리하다 만해사상연구회에서 1981년부터 만해기념관을 건립하여 만해 사상 보급 운동을 펼쳐나갔다. 성북구에서는 1999년 따님으로부터 심우장과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복원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때부터 성북구에서 심우장을 보존·관리하였다. 2009년에는 문화재정밀실측조사를 통하여 『심우장 실측조사보고서』를 발행하였고, 2012년에는 심우장으로 올라가는 입구의 만해 산책공원에 이야기와 휴식이 있는 아트벤치를 제작하여 심우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관광명소 및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심우장 정면 일부를 가리고 있던 벽돌 건물을 철거하고, 2016년 현재의 관리동을 준공하여 심우장 관리·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성북구는 심우장의 정비와 함께 2015년부터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으로 명명하여 관련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만해 한용운이 심우장에서 입적한 날짜인 6월 29일에 맞추어 매년 성북문화원과 정법사, 선학원 공동주관으로 함께 만해 추모 다례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만해 한용운의 출생일인 8월 29일에 맞추어 2015년부터 매년 만해사상실천연합



만해 한용운 스님 진영. 스님은 독립운동가이자 불교 승려였으며, 한국문학사의 큰 족적을 남긴 문인이었다.

**만해 스님 말년 거주 '심우장'**
**민족정신 공간이자 소통 창구**
**이에 맞는 선양사업 추진돼야**
**역사공원, 기념관 등 필요해**
**주민 참여 아카이브 구축 제언**

와 함께 '만해평화문학축전'을 심우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만해 탄생 기념식뿐만 아니라 만해 한용운의 시낭송, 기념강연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만해 한용운의 자유, 평화사상을 알리고 있다.

성북구는 연중 만해 한용운의 문학사상과 독립정신을 심우장에서 배울 수 있는 문화유산 활용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서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을 통하여 성인·가족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만해 선양사업 추진방안 제언

만해 한용운의 사상을 계승하고 가치를 확산하는 기념 공간으로서의 심우장 가치 창출을 위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추진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심우장의 역사성과 가치를 계승할 수 있는 운영 방향과 관련 단체 간 협력 방안, 조직적·제도적 장치수립을 모색하여야 한다.

성북구는 자치단체로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정책 방향 수립, 예산지원을 담당하고, 연구기관으로서 성북문화원, 대학교, 관련 연구소 등은 콘텐츠 발굴 및 고증, 추진기관으로서 성북문화원, 성북문화재단, 대학교 및 관내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과 연계한 사업 추진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심우장의 가치 계승과 지속 가능한 심우장 콘텐츠 발굴과 인력양성이다. 관내 대학교에는 역사·국문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학과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대학 내 한국사연구소, 민족문화연구원, 문화 예술 콘텐츠 연구소 등의 연구기관과 박물관들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원천콘텐츠 발굴을 위한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예술, 미술, 전통문화 등 예술 분야의 학과들도 다수 운영되어 심우장 원천콘텐츠를 공연, 조형, 전시 등으로 문화 콘텐츠화 할 수 있는 연계성도 풍부하다.

이런 풍부한 연구 인력을 기반으로 지역인재 양성까지 힘쓸 수 있다. 지역의 자원을 주제로 한 수업은 지역에 애착을 두게 하고 각 지역의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가와 소통할 기회가 된다.

셋째,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및 기관·단체들과 각 사업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학술회의, 포럼 등과 같은 논의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026년은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해에는 각 자치단체나 기관·단체에서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 기념행사나 사업들이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 공동 학술회의와 포럼을 통해 〈님의 침묵〉의 의의와 그 속에 담긴 조국독립과 민중구제, 자유·평화사상을 돌아보고, 〈님의 침묵〉 국가유산 등록 추진 등과 같은 공동협력 사업을 논의하여야 한다.

넷째, 한용운의 심우장 거주 시기 삶을 재조명하는 콘텐츠 활용 사업 추진이다. 심우장에서의 한용운의 활동을 폭넓게 콘텐츠로 활용함으로써 심우장의 장소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심우장의 역사성과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의 만해기념관과 역사공원 조성이다. 심우장 인근에 만해기념관을 건립하여, 전시 공간은 서울 권역에서의 한용운의 활동, 특히 심우장에서의 민족지사들과의 교류와 지조, 이 시기 문학 활동의 의의, 대중과 함께하려 했던 한용운의 사상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여섯째, 주민들의 참여 부분에 관한 부분으로 문화콘텐츠 사업 기획·실행 단계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심우장 일대가 재개발되어 주변 환경이 변화하기 전 심우장 주변의 환경과 주택들을 기록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심우장에 대한 기억과 의미를 주민 구술인터뷰를 통해 아카이빙하여 심우장의 문화콘텐츠로 삼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심우장을 성북동이라는 공간 안에서 더 입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고, 한용운이 입적했던 1944년에서 시간적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닌 현재 주민의 삶과 이어지는 현재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 심우장과 만해 한용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의 콘텐츠는 지역주민들이 공유하고 향유할 때, 그 학문적 가치가 돋보이는 지역의 문화적 자원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기초자료이다. 공간이나 예산의 제약이 있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성북마을아카이브' 혹은 향후 만해기념관 건립시 구축될 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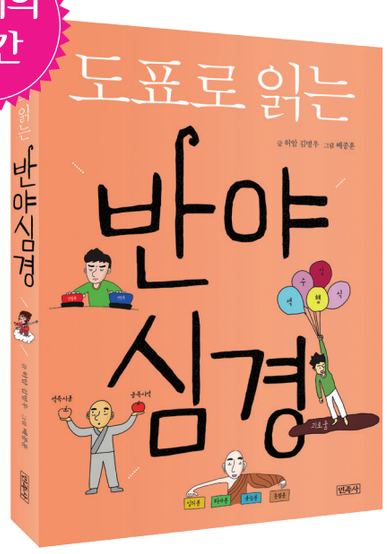


**김지은**
**성북구청 학예사**


#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